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1월 11일)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누락됐던 '사찰 이모지' 韓불교 제작 가능하다

美유니코드협, 4~8월 이모지 공모
새로운 이모지 제안, 누구나 가능
빈도 · 새로운 개념에 '사찰' 부합
이모지, 이젠 전세계적 소통 도구
전문가들 "범불교적인 참여 시급"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전 세계로 보급되는 이모지에 '사찰'을 포함할 방안이 확인됐다. 비교적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사찰 이모지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지자 관련 전문가들은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지 표준코드를 제작, 전 세계에 배포하는 미국 비영리 단체 '유니코드 협회'는 매년 4~8월에 감정·인종·건물 등 다양한 이모지로 원활한 온라인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신규 이모지를 제작·등록하는 공모를 진행한다. 다만 협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최종 승인될 수 있기에 제안서 작성부터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NG 파일 형식에 반드시 컬러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 두 가지 '선택 요소'가 있다.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포함 요소'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자동으로 거부될 수 있는 '제외 요소'가 그것이다.

포함 요소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단연 '빈도(frequency)'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이모지일수록 승인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이모지 제안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인 '이모지네이션' 홍보 영상에서 세바스티안 델몬트 씨는 "제안하는 이모지 검색 횟수가 비교 대상보다 높아야 승인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협회가 요구하는 빈도 데이터는 '구글 트렌드 검색' 산출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데, 불교의 '사찰'은 이 조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지가 구글 트렌드 검색 창구에 불교 사찰과 이미 '종교적 장소' 이모지로 구현된 유대교 사원, 일본 신도(神道) 신사를 비교했다. 사찰을 'Buddhist temple'로, 유대교 사원을 'Jewish temple', 일본 신도 신사를 'Shinto temple'로 설정·검색한 결과, 사찰이 평균 61%, 유대교 사원은 28%, 신도 신사는 2%로 사찰 검색 횟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제 빈도 데이터는 종교 장소 이모지 승인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힌두교 신자인 기리쉬 달비와 마야크 차투르베디 씨는 "교회, 모스크 등 타종교를 상징하는 장소 이모지는 있는 반면, 인도의 종교를 대표하는 이모지가 없다"며 이모지 공모에 참여했다. 이 둘은 구글 트렌드 검색 결과를 토대로 힌두교 사원의 검색 빈도가 유대교 회당과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보다 많다는 점을 증명, 2019년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한 사찰은 아직 이모지로 등록된 적이 없는 '새로운 개념 제시'에 속해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유니코드 협회에 따르면, 기존 이모지나 조합으로 표현되지 않는 새로운 이모지는 포함 요소로서 심사와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모지에 '제외 요소'가 포함될 경우 승인에 감점 요소로 작용하거나 자동으로 제안이 거부 된다. 특히 이모지 디자인에 특정 건물 및 랜드마크, 가상·역사적, 살아 있는 또는 죽은 특정 인물이 들어가면 그 제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또한 디자인이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이모지의 대표성을 해칠 수 있어 심사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불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찰 이모지'를 구현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 이모지 시장에서 불교 '사찰' 이모지를 등록·보급하기 위해서는 불교계와 불자들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관규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유니코드 협회 공모에 의견을 넣으면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불교계와 관련 기관이 협업해 불교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사찰 이모지 시안을 제작하고 신도회 등을 주축으로 공모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불교 관련 이모지가 유니코드 협회에 수용될 때까지 불교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식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 역시 "'사찰 이모지'를 만들 방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이모지 시장뿐 아니라 세계 종교시장에서 불교가 위축될 것"이라며 "최종 승인까지 살펴야 할 가이드라인이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년 4월에 열릴 이모지 공모전에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동국대 재학생들은 12월 4일 교내 팔정도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동국대 학생들의 시국선언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대학생 시국선언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사진=신중일 기자

"비상계엄은 역사 후퇴" 불교계 비판 고조

조계종 · 태고종 성명 발표해
동국대 재학생 시국선언 발표
불교계 시민사회, 일제히 비판
종교지도자들 "민주적 해결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는 온 국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결국 155분만의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후폭풍은 심각하다. 불교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민주적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진우 스님은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며 "우리 모두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킨 이번 사태를 현명한 지혜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법적 판단을 강조한 스님은 "과정은 더욱 세밀하고 차분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고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교 종단 중 가장 먼저 공식 성명을 발표한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비상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해임을 촉구했다. 태고종은 12월 4일 대변인 영범 스님(기획실장) 명의의 비판성명을 통해 "평온한 민주의 밤을 깨고 느닷없이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법률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위이자, 국민을 겁박하는 무모한 선동"이라며 이번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오만과 독선이 그대로 노출된 결과"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태고종은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을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시킨 윤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우롱한 배신행위에 대해 참회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과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련된 인물들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동국대 학생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먼저 시국선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 재학생들은 12월 4일 교내 팔정도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홍예린(사회학과 19학번) 씨는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오로지 자신의 자리만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선포였다. 이는 내란이었고, 국민을 향한 반역이자 쿠데타였다"며 "우리는 대학생이다.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124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을 통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한다"고 밝힌 동국대 학생들은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당선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서, 지금 즉시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도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성명서에서 "현재 국가비상상태가 아님에도 병력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한 점, 국회법 예산 의결과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 점 등은 대통령 스스로 헌정 질서를 전복해 탄핵 사유를 구성한 것과 다름없다"고 적시했다.

불교인권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독재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청천벽력같은 반(反)헌법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의 안위를 위협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종교지도자들은 민주적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정부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도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실천할 것"을 정치인들에게 요구했다. 신중일 · 임은호 · 김가령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일시 : 2024년 12월 18일(수) 오후 5시
장소 : HW컨벤션 (하림각 서울 종로)
문의 : 02)2004-8214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곧은 길도 있었고, 울퉁불퉁한 길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심장이 멈출 정도로 뛰었고, 때로는 아픈 다리를 누이고 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걸어온 30년 세월은 어느덧 '불교 언론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해주신 고승 대덕스님과
불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뛰려고 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1994년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불법홍포'라는 불교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진정한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도약의 걸음을 내딛는 축하와 기념의 자리에 모시고자 하오니, 함께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모든 인연과 생명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불기2568(2024)년 11월

현대불교신문 발행인 혜 도
대 표 한명우 합장